

SK하이닉스의 對美 투자는 사실이 아니며, 정부와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- ☐ 2026.7.22. 중앙일보는 「SK하이닉스의 승부수…인텔 美오하이오 공장산다」 제하 기사에서,
 - “SK하이닉스가 내부 검토와 정부의 승인을 거쳐 美오하이오주 반도체 공장 부지와 시설 인수 협상을 추진 중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- ☐ 정부는 해당 투자 계획과 관련하여 SK하이닉스 측과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.
- ☐ 또한, SK하이닉스도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인텔의 오하이오 부지와 팹 인수를 추진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공시한 바,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	책임자	과 장	안홍상 (044-203-4270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훈 (044-203-4273)